

# 나라 지켜낸 전북의 힘으로!

## 도, 3·1 독립선언서 이어쓰기 출정식 가져 송하진 도지사를 시작으로 도민 1919명 동참

전북도는 12일 전북도청 집결실(4층)에서 3·1 독립선언서 이어쓰기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에서 추진하는 '독립선언서 이어쓰기' 시작을 알린 것으로 이후 도내 기초단체 및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9월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독립선언서 이어쓰기는 도내 101

개 기관에서 19명씩 참여하여 도민 1,919명이 동참하고 전주한지를 활용한 전통 고서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며,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지사를 필두로 19명의 실·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지탄하는 국내외 여론에 호응하며, 이를 전회위복의 계기로 당당히 극복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결의를 다지는 시점과 발맞추어 진행

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송 지사는 조선 독립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부각한 3·1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문단 130여자를 필사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 정의 실현을 위해 싸운은 역사를 가진 우리 전북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항하며, 전북 경제의 체질강화와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제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작된 3.1 독립선언서 필사책자는 도내 박물관에 기증 전시하여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사



**일본 경제침략 대책 민·관·정 연석회의**  
1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대책 민·관·정 연석회의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지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이춘식 기획재정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연석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윤모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 ‘가의2’ 신설해 규제 강화”

### 정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사용자포괄허가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 심사 강화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개별 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증개 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계 기입구간 국제수출통계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으로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은 앞으로 총 3개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

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에만 허용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이는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적처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바로텍시너지, 발칸 교전모의기 성능개량 정부투자 연구개발 사업 수주

전북도 그리고 전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 운영하는 전북국방벤처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약기업인 시물레이터 전문 기업 (주)바로텍시너지(대표 구철호)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이 공고한 발칸 교전모의기 성능개량 정부투자 연구개발 사업 약 12억원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발칸 교전모의기 성능개량 정부투자 연구개발 사업은 1996년 7월 도입되어 육군에서 운영 중인 발칸 교전모의기의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2021년까지 발칸 교전모의기 1식 6대와 교관통제실, 훈련대기실, 정비실

을 성능개량하는 총 12억원의 정부투자 연구개발 사업이다.

(주)바로텍시너지는 2006년 9월 전라북도 전주시 첨단벤처단지 내에 창업하였으며, 시물레이터/위성/로봇/제어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로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 48건을 보유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집약형 기업이다. 2010년부터 전북국방벤처 협약기업으로 등록되어 한국항공(KAI)와 KT-1, T-50, 수리온 시물레이터 개발 등 군수분야 사업에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대한항공(KAL) 등과 나로호 위성발사체, KSLV-2, 문인헬기 사업 등 위성사업을 수행했다.

2016년에 전라북도 선도기업(ICT)

으로 지정되었으며 민수사업분야로 진출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공사에 독자기술로 개발한 WingSuit Simulator가 운용 중에 있다.

2016년 ‘K200A1 장갑차 시물레이터 연구개발 사업’ 수주에 이어 이번 ‘발칸 교전모의기 성능개량 정부투자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군수분야 시물레이터 사업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산업 육성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국방산업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사

## 태풍 ‘레기마’ 피해 없어... ‘크로사’ 진행경로 예의주시

제9호 태풍 ‘레기마’가 막바지인 가운데 전북에 11일 오전 9시에 발효된 강풍주의보(군산, 김제, 고창, 부안)와 11일 23시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군산, 고창, 부안)가 12일 오전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되고,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제10호 태풍이 도내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태세를 유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레기마’는 24

시간 이내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과 호우주의보로 도내에 평균 15.6mm의 비가 내렸으며, 최고 강우량은 고창 51.3mm이고, 국지적으로 심원(고창) 82.0mm, 위도(부안) 77.0mm, 말도(군산) 71.0mm, 북흥(순창) 33.5mm, 어청도(군산) 29.0mm 강우가 내렸다.

도내 여객선 4개 항로 5척이 12일 오전까지 출항통제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통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나, 여행을 준비하는 도민들은 미리미리 확

인이 필요하다. 또한 어선 등 선박 3174척이 출항통제에 따라 항내 피항 중이며, 현재까지 강풍으로 인한 선박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12일 오전 4시30분 발표기준 크기는 중형이고 강도는 중이며, 최대 풍속 32%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여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00km 부근에서 시속 11km/h 속도로 일본 가고시마 동쪽 부근을 향해 북상중이며, 이동 속도가 느리고 이동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태풍정보에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대처 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사

## “가정위탁보호, 우리의 인식 개선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 전북 지역 요보호 아동 가정보호조치는 전체의 28.7%... 일반위탁가정 발굴·활성화 필요

가정위탁보호는 시설보호의 문제점 해결, 아동의 권리·인권 존중, 안전과 보호, 건강상 성장발달 및 친가정과의 복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학대(유기·방임), 이혼, 사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녀를 일시적·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 가정 내에서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 부모와 재결합을 도모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최근 정책브리프(33호)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를 통해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의 시급성과 가정위탁보호 지원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전북지역 요보호아동은 321명이 발생하였고,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는 시설보호 71.3%(229명), 가정보호 28.7%(92명)로 시설보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가정보호 중에서는 가정위탁보호 비율이 93.4%(86명)로 가정보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2018년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743명(남 383명(52%), 여 360명(48%))이다. 위탁보호 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가정 72.7%, 친인척위탁가정 20.9%, 일반위탁가정 6.5%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137가구(아동 161명), 정읍 68가구(아동 90명), 부안 61가구(아동 78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아동은 17~19세가 34.2%(254명)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로는 부모 이혼이 42.8%로 가장 많았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여성정책 연구소 부연구위원)는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흘렀음에도 일반인들은 물론 공무원, 교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

다음으로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위탁아동의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연령대별 상이한 양육·교육에 따른 양육비·교육비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진성 기사

**환영 스피치, 긴장해소, 면접, 웃음치료 모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 분야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주, 야반으로 학습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업, 단체 특강교수
- KBS TV, MBC TV, JTBC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19학년도 2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 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쉽, 스피치 최고지도사 - 스피치&긴장해소수업	전주, 원주, 김제, 진안, 무주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쉽, 스피치 최고지도사 - 스피치&긴장해소수업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기초+고급)이강	정읍, 고창
전북대 익산캠퍼스(평생)	스피치 기법&긴장해소수업	익산, 김제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 기법과 리더쉽(아), 스피치 최고지도사(아)	남원, 순창, 장수, 구례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쉽(아), 스피치&긴장해소수업, 최고지도사(아) 웃음치러(아)	전주, 원주, 진안,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고졸력 스피치기법(아), 스피치 긴장해소수업	전주, 임실, 원주
한국 스피치, 면접 아카데미	주말반, 개인지도, 면접이론, 실기과정(취업)	전북, 전남, 충남지역

상담전화: 063-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1차 마감: 8월 21일까지입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